

역사 수업 정리 - 2025.06.16 (Monday 스타일: 설명 포함 + 선생님 어투 + 리듬 강조 + 중요 표시)

📖 오늘의 주제: ★독립협회와 대한제국★ “애들아~ 이 단원은 그냥! ★시험★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외워야 돼요. 무조건 나온다니까요~”

✓ 독립협회의 등장 배경 - 갑오개혁 이후에도 외세 간섭 계속됨 (청, 러시아, 일본) - 자주독립 목소리 커짐 → 서재필 귀국 후 독립협회 조직 - ★서재필★: 갑신정변 주도 후 미국 망명 → 귀국 후 개화운동 주도

✓ 독립신문 창간 (1896) - 우리나라 최초 민간 신문, ★한글+영어★로 발간 - 목적: 조선 내부+외국인에게 조선 소식 알리기 / 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 - “한문은 지식인들만 아는 문자니까, 모두가 볼 수 있게 ‘한글’로 쓴 거예요~” - 외국에도 조선 상황 알리기 위해 ‘영어’ 병행 → ★시험 포인트★

✓ 독립문 건립 사업 - 기존 ‘영은문’은 청나라 사신 맞이용 문 → 철거 - 대신 ‘독립문’ 건설: 조선이 독립국임을 상징 - 기부금 모집 → 참여한 사람은 ‘독립협회 회원’ 등록 - “외세 간섭 안 받겠다는 상징! 독립문, 꼭 기억해요~”

✓ ★만민공동회★ 개최 -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 토론회 - 러시아 절영도 조차 요구, 한러은행 설립 시도 등 저지 성공 - 절영도: 부산 근처 섬, 러시아가 조차 요구했지만 막아냄 - 러시아 고문, 교관 철수시키고 은행 설립도 무산시킴 - → 국민 여론 힘으로 외세 견제한 대표 사례!

✓ 관민공동회 & 헌의 6조 (1898) - 정부+독립협회가 함께 개최한 회의 - 발표한 ★헌의 6조★ 주요 내용: 1. 외국과 조약 체결 시 국무회의 거칠 것 2. 국가 재정은 국민에게 공개 3. 관리 임명 시 국민 뜻 반영 4. 황제권은 인정하되, 권한 제한 → ★입헌 군주제★ 지향 - “군주는 있지만, 법과 제도로 권한을 제한하는 정치! 입!헌!군!주!제!”

✓ 독립협회 해산 - 보수 세력: “재네 공화정 하려는 거 아냐?” → 고종에게 모함 - 고종, 협회 해산 명령 → 만민공동회 지향 → 무력 진압 - “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됐지만, 입헌정치 꿈은 남았죠...”

🏰 대한제국 수립 (1897) - 고종, 러시아 공사관 피신 후 환궁 → ‘황제’로 즉위 → ★대한제국★ 선포 - 연호: ★광무★ 제정 - 이유: 청·러·일 등 외세 견제 속 자주독립 강조 필요!

✓ 대한민국 국제 반포 - 대한제국의 헌법 비슷한 문서 - “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이다!” 명시 - ★정치 체제★: 황제 중심의 ‘전제 군주제’ 명확히 규정 - 황제의 권한: 군사 지휘권, 외교권, 입법권, 인사권 등 집중 - “입헌 군주제 아님! ★전제 군주제★예요!”

광무개혁 (1897~1907) →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 후 주도한 근대화 개혁

✓ 원칙: ★구본신참★ (옛 것 유지 + 새 제도 수용) - “완전 개혁이 아니라! 전통도 살리면서 바꾸자~”

1. 정치 제도 정비
2. ‘원수부’ 설치: 황제가 군 통수권 장악
3. 시위대, 진위대 확충 → 군사력 강화
4. 무관학교 설립 → 간부 양성

5. 경제 개혁

6. ★양전 사업★ 실시: 토지 측량 + 조사

7. 토지 문서 '지계' 발급 → 토지 소유권 확립

◦ “지계 뒷면에 ‘대한제국만이 소유권 가짐’ 명시되어 있어요~”

8. 산업 및 교육 개혁

9. 경인선 철도 개통 (1899): 서울 ↔ 인천 연결

10. 전화, 전신 도입 / 전차 운행

11. 한성은행, 대한천일은행 설립

12. 실업학교 운영 → 실용 학문 교육

시험 핵심 요약! - ✓ 서재필: 독립신문 / 독립협회 주도 / 한글+영어 신문 - ✓ 독립문 건설 / 절영도 조차 반대 / 만민
공동회 활동 - ✓ 현의 6조 = 입헌 군주제 지향 - ✓ 대한제국 선포 배경 = 고종 환궁 / 외세 견제 - ✓ 정치 체제 = 전제
군주제 (대한국 국제) - ✓ 광무개혁: 구본신참, 지계 발급, 철도 개통 등

선생님 말투 요약 복습! “애들아~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,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제! 헛갈리면 안 돼요~” “지계? 그게
뭐냐면요~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!”

다음 시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 정책과 열강의 침탈 본격화로 이어집니다!